혁신도시 예정지 주민 77%가 "고향 안떠난다"

나주시, 금천·산포면 480여가구 설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가피하게 이주 정착지로 옮겨 살아야 할 경우에는 각 면별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보다는 마을별로 만들어진 소규모 이주 정착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등 공동혁신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83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실태와 이주대책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겠다'고 답변, 오랫동안 살아온 삶터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혁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인근지역에서 거주하겠다는 답변은 12%였으며, 광주 2.8%, 나주시내(구도심) 2.2% 순이었다.

혁신도시 내에 이주 정착지를 조성할 경우 거주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가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정착하겠다'고 답했으며, 혁신도시밖에 이주단지 조성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97%를 차지했다.

'이주 정착지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면별로 조성된 대규모 이주 정착지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25%에 그친 반면 마을별로 마련된 소규모 이주 정착지를 원한다는 응답자는 70%를 기록, 혁신도시 내 원주민을 위한 마을의 형태로 전원마을 형 단독주택(81%)을 선호하는 것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임시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임시 이주단지 조성을 원하는 비율이 73%로 나타났고, '임시 주거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예정지 주변(65%), 광주(20%), 친인척 집(9%)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이전비 지원'을 원하는 응답자가 53%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원하는 응답자(41%)보다 많았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유채밭 만들고 편익시설 설치 황룡강 가꾼다

장성군이 황룡강 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장성군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 주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장성댐 주변과 공설운동장 주변 2.6㎞에 13만2천㎡(4만평)의 유채단지를 조성한다. 이와함께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쉼터, 음수대, 화장실, 소규모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15일까지 장성군이 황룡강 가꾸기사업 참여단체를 공모한 결과 31개 단체 1천6백50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군은 26일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황룡강 가꾸기사업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진도 홍우·홍돈 나온다

홍주 주정박 먹여 키운 소·돼지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 맛도 우수

홍주 발효사료를 먹인 고급 브랜드 육인 진도 홍우〈사진〉와 홍돈이 출시된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홍주 주정박(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발효사료를 한우 및 돼지 사육농가에게 공급, 홍우와 홍돈을 사육하고 있다.

홍주 주정박 발효사료를 생후 4개월(50㎏)부터 6개월(110㎏)까지 먹인 돼지의 육질 실험 결과 등급 향상과 등지방 두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키고 맛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4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홍우 역시 홍돈 못지않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은 규모화·전문화된 홍우·홍돈 생산농가를 육성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농가와 홍우 생산 작목반을 매주 1회 이상 방문해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홍우·홍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을 지정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강진서 전국 싸이클대회 열린다

내달 1일부터 4일간 40여개팀 참가

제 54회 3·1절 기념 전국도로사이클 대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간 강진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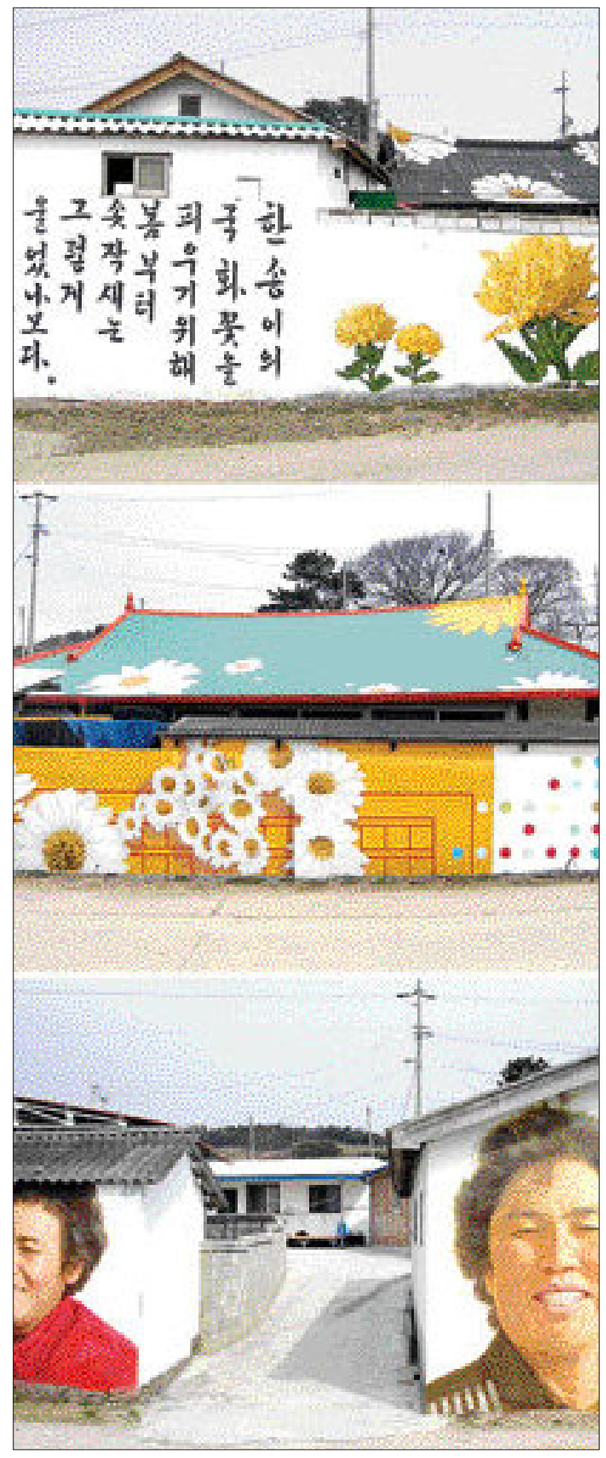
대한 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전국도로사이클대회는 3년 전부터 강진에서 개최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시청 여자팀과 대한지적공사팀, 한국수자원공사팀, 체육진흥공단팀 등 전국 40여개 팀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단체도로는 강진 우시장 앞을 출발하여 작천 풀치재와 장흥 관산을 돌아오는 총 60km 코스로 강진만 갈대밭과 탐진강의 장관을 구경할 수 있는 천혜의 코스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는 2007년 세계사이클선수권대회와 아시아 주니어 대회 및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를 겸하고 있어 어느 대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부대행사로 펼쳐지는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는 강진관내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대회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사이클대회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온 동네 수놓은 '국화옆에서'

고창 돋음별 마을 담벽 등 미당 시·국화송이 등 그려

고창군 부안면 돋음별 마을내 담벼락과 지붕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 옆에서'와 국화 수천송이, 누님의 얼굴이 그려진 벽화가 그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벽화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업체인 송주철 공공디지연구소에서 6개월 간의 작업 끝에 완성됐다.

함박웃음을 짓는 누님들은 이 마을 주민인 김순애(67)·양옥순(65)씨가 모델이 됐다.

서정주 시인이 잠든 질마재 아래에 위치해 있는 돋음별 마을 주민들은 3년전부터 미당 묘역과 시문학관 주변에 국화를 심고 축제를 벌여 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해남읍 국민임대 300가구 짓는다

12~15층 2009년 완공

해남읍에 국민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한주택공사는 해남읍 해리 해남소방서 앞 5천200평의 부지에 12~15층 304세대 규모의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규모는 17평(전용11평) 234세대와 21평(전용14평) 70세대 등 총 304세대로 3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09년 준공될 예정이다.

주택공사는 택지매수가 완료되는 오는 11월께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도시 저소득층에 30년간 임대돼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갈지자 배' 적발합니다

서남해상 음주운항 단속

"27일 서남해상에서 해상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7일 해상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어선, 유조선, 위험화물운반선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항로에서 갈지자(之) 운항 등 음주 운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광산 첨단도서관 문화교실 칼라믹스 등 수강생 모집

지난해 11월 건립한 광산 첨단도서관이 오는 3월 문화교실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오는 3월 8일 개강해 5월까지 운영될 첨단도서관 문화교실은 7개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고 각 강좌당 20명씩 140명의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첨단도서관이 마련한 강좌는 POP 예쁜글씨(월 1만원), 칼라믹스 일러스트 기초과정 2개반(월 1만원), 동화구연 2개반(일반인반 1만원, 초등생반 무료), 독서치료(무료), 독서지도(무료) 등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